



FOMC 구성원들의 최근 발언 정리 (9/16 기준)

김석환 |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seokhwan.kim@miraeasset.com

DOVES

NEUTRAL

HAWKS

VOTERS

Board



리사 쿡 이사

(5/10) 상원인준통과 51-50
흑인 여성 최초 연준 이사
임기 2024년 1월 까지



라엘 브레이너드 부의장

(9/7) 인플레이션 앞으로 몇 달
동안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지만
선행 지표는 승리는 말아야. 인플레이
션이 목표치로 내려가도록 당분
간 경제둔화, 금리인상 필요



필립 제퍼슨 이사

(5/11) 상원인준통과 91-7
네 번째 흑인 연준 이사
임기 2036년 1월 까지



제롬 파월 의장

(9/8) 목표(2%) 달성할 때까지
지속적으로 강력대응해야. 대중
이 인플레 지속 전망하며 '비용'
더 커져. 노동수요 여전히 강력.
성장둔화 통해 균형 필요



마이클 바 부의장

(9/7) 금융시스템을 소비자에게
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데
집중. 은행의 인수합병, 자본요
건, 그리고 가상화폐 등과 관련
한 부분을 우선 순위에 둘 것



크리스토퍼 월러 이사

(9/9) 9월 큰 폭(75bp) 인상 지
지. 데이터보면 결정 간단. 고용
탄탄하기 때문에 인플레에 공격
적 대응 가능. 작년 인플레 둔화
했다 급등. 또 속으면 신뢰 타격



미셸 보우먼 이사

(8/17) 노동시장 강세 지속. 다
만 노동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은
여전.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
부담을 느끼는 퇴직자가 노동시
장으로 재유입될 수도

NONVOTERS

FRB

Alternate



수잔 콜린스 보스턴

(7/1) 7월 1일부터 임기 시작.
보스턴 연은의 두 번째 여성이자
최초의 유색인종 총재. 그녀는
오는 7월 26일에 열리는 첫
FOMC 회의에 참석할 예정



존 윌리엄스 뉴욕

(8/30) 짧은 긴축 후 방향 전환
아냐. 제약적 정책 지속. 내년 금
리 인하 가능성 희박. 내년에도
긴축. 시질금리 플러스 돼야 인
플레 낮출 수 있어.



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

(9/9) 연착륙 보고 싶지만 인플
레 때문에 힘든 경로. 여전히 강
한 경제가 Fed에 긴축 여지 주
고 있어. 단 긴축 속도보다 안정
을 우선시해야



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

(9/7) 미 노동시장 너무 강하기
때문에 경제가 침체에 있다고 생
각하지 않아. 다만 향후 2년 동
안 경기침체 위험 높아져. 인플
레이션 통제 위한 연준 역할 커



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

(9/9) 월가 내년 더 길게 고금리
유지 가능성 과소 평가. 8월 물
가 둔화했을 수 있으나 75bp 인
상 더 기울어. 연말 4% 금리 선
호. 내년 하반기 완화 기대 잘못

주) 2023년 1월 은퇴 예정 (5/25)

주) 2023년 초 은퇴 예정 (4/21)



닐 카시카리 ★ 미니애폴리스

(8/29) 잭슨홀 직후 시장 반응보
고 기뻐. 7월 FOMC 후 랠리 보
며 실망. 우리 인플레에 전념.
70년대 최대 실수는 인플레 둔
화 판단에 물러선 것



찰스 에반스 ★ 시카고

(9/9) 9월에 75bp 올릴 것. 내
년 금리는 4% 넘어설 것. 올해
경제성장률 0.5%, 고용시장 둔
화 예상. 반도체 공급난 해소되
려면 최소 2년은 걸릴 것



라파엘 보스틱 ★ 애틀란타

(9/1) 현재 인플레이션 우리 목
표(2%) 보다 너무 높아. 수요 낮
추면 경기둔화 위험 커져. 침체
맞을 수도. 역사상 연착륙 1~2
번 밖에 없었고 매우 어려워



패트릭 하커 ★ 필라델피아

(8/26) 연말까지 '제한영역' 도
달해야. 일단 3.4% 넘은 뒤 이
수준에서 한동안 유지 원해. 하
지만 지표가 추가 인상 요구하면
그렇게 해야.



로리 K. 로건 ★ 델러스

(9/1)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물
가 안정을 회복하는 것. 그렇지
않으면 기업과 가계에 심각한 영
향과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
기 때문



토마스 바킨 ★ 리치몬드

(9/6) 경제활동을 억제하는 수
준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인플레
이션이 진정됐다는 확신이 들 때
까지 금리를 유지해야. 실질금리
가 0 이상에 머물도록 정책 강화



메리 델리 ★ 샌프란시스코

(8/18) 핵심 서비스 인플레이션
은 여전히 상승 중. 올 연말까지
3% 조금 넘는 수준의 금리 예상.
적절한 범위의 금리 인상 기조
지속 유지